

#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

- 수출 다변화 동향을 반영, 전기기기·비철금속·농수산물·화장품·생활용품 등 5개 신규 품목 추가
- 반도체,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세부항목을 현 산업구조를 고려해 재편

□ 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분석을 위한 MTI 코드\* 기준을 개정했다. 수출 품목의 다변화 동향을 반영해 기존 15대 주력품목에 중간재인 전기기기·비철금속과 소비재인 농수산물·화장품·생활용품을 추가해 20대로 확대하고, 현 산업 및 수출 구조를 고려해 주요 품목의 세부 항목을 조정했다. 아울러, 해당 기준을 적용해 2026년 1분기 수출입 동향을 분석했다.

\* HS 코드(전세계 공통)를 우리 산업 구조에 맞게 산업통상부에서 자체적으로 재분류

## 【 수출입 통계 개편 】

□ 이번 개정은 ‘20년 이후 6년만에 이루어진 개편작업으로 ①수출 다변화 동향을 반영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하고, ②산업 및 수출 구조, 품목에 대한 설명력 등을 고려해 세부품목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.

① 최근 수출 동향을 고려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했다.

- 최근 수출이 증가\*하고 있는 전기기기·비철금속·농수산물·화장품·생활용품을 주력 품목으로 포함시켰으며, 지속적으로 통계를 제공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동향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\* △수출 규모, △통계 예측분석 가능성, △정책 방향과의 부합성, △산업의 위상 등도 고려

- 20대 주력 수출 품목의 ‘25년 수출 비중은 86.3%로 상승(기존 15대 77.2%), 전체 수출 통계와 동향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.

## 【 '25년 품목별 수출액, 증감률, 비중 】

	수출액(억불)	증감률(%)	수출 비중(%)
15대 품목	5,476	(+3.7)	(77.2)
전기기기	166.8	(+8.2)	(2.4)
비철금속	147.1	(+9.2)	(2.1)
농수산물	124.0	(+6.5)	(1.7)
화장품	114.2	(+12.2)	(1.6)
생활용품	90.0	(+3.9)	(1.3)
20대 품목 계	6,119	(+4.2)	(86.3)
전체 수출	7,093	(+3.8)	-

② 산업 및 수출 구조, 품목에 대한 설명력 등을 고려해 반도체, 자동차, 바이오헬스 등 주요 품목의 세부품목을 조정했다.

- 반도체는 집적회로라는 동일 코드내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가 혼재했으나, 각각 구분하여 통계를 제공하고 메모리반도체는 D램과 낸드 등으로 세분화했다.
- 자동차는 차종과 파워트레인이 같은 레벨의 코드에 존재하여 혼란이 있었으나, 차종을 상위 레벨<sup>4단위</sup>로, 파워트레인별을 하위 레벨<sup>6단위</sup>로 재편하고, 신차·중고차를 구분해 수출 동향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했다.
- 바이오헬스는 별도 MTI 코드를 신설하고 세부항목을 의약품,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분야별 수출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했다.
- 철강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철강재과 세부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존 철강재에 포함되어 있던 기타철강재, 원부자재 등을 기타 철강 금속제품으로 이관했다.
- 배터리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리튬이온배터리가 기타축전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별도 코드를 신설하고, 다른 분류 항목에 흩어져있던 배터리 소재(양극재, 전해액, 분리막 등)도 하나의 코드로 통합하여 신설했다.
- 섬유는 섬유소재·제품임에도 타 분류항목에 혼재되어 있던 천연소재(기존 농수산물식품), 가방·신발·벨트(기존 생활용품) 등을 이관해 통계의 대표성을 확보했다.
- 일반기계는 하위 분류(제조장비, 산업기계, 에너지기계, 기계부품)를 업계 요청 사항을 반영해 실제 산업별 분류와 일치시켜 통계 활용도를 제고했다.

□ 이번 개정안은 MTI 코드 기준 개정으로 통계적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, 과거 자료('22년 이후)도 소급하여 통계적 일관성 등을 유지토록 했다. 아울러, 6.1일부터 향후 매월 발표되는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에도 개정된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.

\* 무역협회 무역통계사이트는 '26.6.1일부터 조회 가능

□ 이번 개정안은 약 4개월간 MTI 체계를 활용하는 업종별 협단체 등 전문가 의견과 내부 논의를 종합하여 마련되었으며, 세부 변경 사항과 HSK-MTI 연계표 등은 8일 공개되는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예정이다.

## 【 '26.1분기 수출입 동향 분석\* 】

\* 개정된 MTI 코드 기준 적용

□ (총괄) '26.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.8% 증가한 2,199억 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,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34.7% 증가한 33.6억 달러를 기록했다. 수입은 1,694억 달러로 10.9% 증가, 무역수지는 504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437억 달러 개선됐다.

\* 1분기 수출 추이(억 달러) : <sup>1</sup>위**2,199('26년)** → <sup>2</sup>위1,734('22년) → <sup>3</sup>위1,633('24년)

\* 무역수지 추이(억 달러) : '25.1Q+66.9 → '25.2Q207.3 → '25.3Q224.0 → '25.4Q276.1 → '26.1Q**504.3**

□ (품목) 1분기에는 20대 주요 수출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.

\* 수출증가품목(억 달러, %) : 반도체785(+139), 석유제품132(+24), 선박82(+14), 컴퓨터75(+169), 바이오42(+10), 무선통신53(+40), 전기기기41(+2), 비철금속41(+29), DP40(+6), 농수산물31(+7), 화장품31(+22), 생활용품21(+4), 이차전지20(+10)

반도체 수출은 높은 메모리 가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AI 서버 투자 확대에 139% 증가한 785억 달러를 기록했다. 메모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D램은 249.1% 증가한 357.9억 달러, 낸드는 377.5% 증가한 53.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, 시스템반도체도 13.5% 증가한 121.1억 달러를 기록했다.

자동차 수출은 화물차(7.1억 달러, +63.9%)는 크게 증가했으나, 승용차(163억 달러, △2.2%), 승합차(0.7억 달러, △31.7%) 등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0.3% 감소한 172억 달러를 기록했다.

바이오헬스(42.0억 달러, +9.6%)는 의료기기 수출(14.7억 달러, +5.5%)은 소폭 증가했으나, 주요국의 바이오시밀러 수요가 지속 확대되며 의약품 수출은 11.9% 증가한 27.3억 달러를 기록했다.

이차전지 수출의 경우 리튬 등 광물 가격 상승과 신제품 출시 등 영향으로 리튬이온전지 수출(12.1억 달러, +16.9%)이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9.9% 증가한 19.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, 양극재는 5.5% 감소한 11.6억 달러를 기록했다.

섬유 수출은 섬유 원료 1.4% 감소(2.5억 달러), 직물 7.1% 감소(10.6억 달러) 등으로 전체적으로 0.6% 감소한 25.2억 달러를 기록했으나, 섬유제품은 K-패션에 대한 수요 확대에 7.1% 증가(10.0억 달러)했다.

전기기기 수출(40.5억 달러, +2.5%)은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에 변압기·전선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, 비철금속 수출은 동·알루미늄 등 광물 가격 상승의 영향 등으로 28.9% 증가한 40.9억 달러를 기록했다.

\* '26.1분기 광물가격 증감률 : 동+37.5%, 알루미늄+21.8%  
동·알루미늄 제품 수출단가 증감률 : 동제품+35.0%, 알루미늄제품+6.8%

소비재 품목 수출은 한류 확산 영향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. K-뷰티 선호 증가로 화장품(31.3억 달러, +21.5%) 수출이 증가했으며, 농수산물식품 수출은 K-푸드 인식 제고로 면류(5억 달러, +24%) 등 품목이 크게 확대되면서 7.4% 증가한 31.1억 달러를 기록했다. 생활용품(21.0억 달러, +3.9%) 수출은 K-콘텐츠 인기 확대에 문구·완구(7.8억 달러, +16.6%) 등이 호조세를 보였다.

□ (수입) 1분기 수입은 10.9% 증가한 1,694억 달러를 기록했다. 에너지 수입은 저유가 등으로 7.2%(286.6억 달러) 감소했으나, 에너지 외 수입은 반도체 장비(+32.5%) 등을 중심으로 15.4%(140.8억 달러) 증가했다.

□ (글로벌 수출 순위) '26.1~2월 기준(WTO)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, 미국, 독일, 네덜란드에 이어 5위를 차지했으며, 상위 7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.

\* '26.1~2월 수출액(억불, %) : 1위중국 6,566(+21.8) → 2위미국 3,814(+14.7) → 3위독일 2,984(+12.7)  
→ 4위네덜란드 1,598(+8.2) → 5위한국 1,332(+31.3) → 6위일본 1,203(+8.5) → 7위이탈리아 1,183(+11.0)

글로벌 경기가 AI 서버 투자를 중심으로 견인되는 가운데, 반도체를 주력으로 수출 하는 우리나라는 30% 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으며, 자동차·일반기계 등 전통적인 제조업을 주력으로 수출 하는 일본과, 농수산물·바이오헬스 등을 주로 수출하는 이탈리아의 경우 10% 내외의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.

□ (평가)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“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한편, 반도체 외 수출도 두 자릿수의 견조한 증가세로 받쳐주면서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, 2월까지의 글로벌 수출 순위도 5위로 올라섰다”라고 강조했다.

\* '26.1분기 수출 증감율 : 반도체+139.1%, 반도체 외+11.6%

또한, “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, 미국 관세의 불확실성 등 향후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”라고 평가하고, “무역 금융 확대와 수출보험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, 물류 차질에 대비한 운송·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 1분기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수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무역정책관 수출입과	책임자	과 장	민문기	(044-203-40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훈	(044-203-4042)
			사무관	이동욱	(044-203-4043)
			주무관	오소림	(044-203-4047)
			주무관	박성균	(044-203-4048)



## 참고1

## MTI 개념 및 분류 체계

### □ MTI(Ministry of Trade Industry) 개념

- 1988년 산업부에서 무역통계 분석을 위해 제작한 분류표로서, 무역 분석을 위해 HS 코드와는 별도로 우리 산업구조에 맞게 자체 제작

\* HSK 11,327개 코드(10단위)를 MTI 1,263개 코드(6단위)로 재분류

#### <MTI(Ministry of Trade Industry) 정의>

- ◇ 수출입통계 품목분류에 널리 사용되는 HS코드는 WCO(세계관세기구)에서 관세 부과를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무역통계 분석 활용에는 다소 어려움
- ◇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적합한 품목분류를 통해 정책집행 및 경제분석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'88년 산업자원부에서 MTI 기준 수출입 품목 분류체계를 작성

### □ 기존 MTI 분류 체계 기준

대분류		중분류	비고
코드	품목명		
0	농림수산물	농산물 <sup>01</sup> , 축산물 <sup>02</sup> , 임산물 <sup>03</sup> , 수산물 <sup>04</sup>	
1	광산물	금속광물 <sup>11</sup> , 비금속광물 <sup>12</sup> , 광물성연료 <sup>13</sup> , 기타광산물 <sup>19</sup>	석유제품 <sup>133</sup>
2	화학공업 제품	석유화학제품 <sup>21</sup> , 정밀화학제품 <sup>22</sup> , 비료 <sup>23</sup> , 요업제품 <sup>24</sup> , 제지원료및종이제품 <sup>25</sup> , 석면및운모제품 <sup>26</sup> , 마찰및연마제품 <sup>27</sup> , 기타화학공업제품 <sup>29</sup>	화장품 <sup>2273</sup>
3	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	플라스틱제품 <sup>31</sup> , 고무제품 <sup>32</sup> , 가죽및모피제품 <sup>33</sup>	
4	섬유류	섬유원료 <sup>41</sup> , 섬유사 <sup>42</sup> , 직물 <sup>43</sup> , 섬유제품 <sup>44</sup>	
5	생활용품	생활용품 <sup>51</sup> , 기타생활용품 <sup>52</sup>	
6	철강금속 제품	철강제품 <sup>61</sup> , 비철금속제품 <sup>62</sup> , 식탁용구 <sup>63</sup> , 주화 및컨테이너 <sup>64</sup> , 기타 철강제품 <sup>69</sup>	
7	기계류	기초산업기계 <sup>71</sup> , 산업기계 <sup>72</sup> , 정밀기계 <sup>73</sup> , 수송기계 <sup>74</sup> , 기계요소공구및금형 <sup>75</sup> , 기타기계류 <sup>79</sup>	일반기계 <sup>71,72,75,79</sup> , 선박 <sup>746</sup> , 자동차 <sup>741</sup> , 차부품 <sup>742</sup>
8	전자전기 제품	산업용전자제품 <sup>81</sup> , 가정용전자제품 <sup>82</sup> , 전자부품 <sup>83</sup> , 전기기기 <sup>84</sup>	무선통신 <sup>812</sup> , 컴퓨터 <sup>813</sup> , 반도체 <sup>831</sup> , 디스플레이 <sup>8361</sup> , 이차전지 <sup>8352</sup>
9	잡제품	인쇄물 <sup>91</sup> , 예술품 <sup>92</sup> , 수집품 <sup>93</sup> , 안경및콘택트렌즈 <sup>94</sup> , 의료위생용품 <sup>95</sup> , 보석및귀금속제품 <sup>96</sup> , 무기류 <sup>97</sup> , 가발 및 가늄 <sup>98</sup> , 기타잡제품 <sup>99</sup>	

## 참고2

## MTI 개편 주요 사항

품목명	하위 분류 체계(기존)			하위 분류 체계(변경)	
반도체	집적회로	메모리반도체, 증폭기 프로세서와 컨트롤러, 등	⇒	메모리반도체	D램, 낸드, S램, 기타
	집적회로부품			시스템반도체	프로세서와 컨트롤러, 증폭기 등
	개별소자			개별소자반도체	
	개별소자부품			실리콘웨이퍼	
	실리콘웨이퍼				
자동차	승용차	1,500cc이하, 1500cc초과 등	⇒	트랙터	내연기관(신차), 내연기관(중고차), 하이브리드(신차), 하이브리드(중고차), 전기차(신차), 전기차(중고차)
	화물자동차	전기차, 하이브리드차, 기타		승합차	
	특장차	특장차		승용차	
	전기자동차	전기자동차		화물차	
	기타자동차	하이브리드차, 기타자동차		특장차	
바이오헬스	분류체계 부재		⇒	의약품	완제의약품, 원료의약품
				의료기기	
철강	철강재	철강재, 원부자재, 기타철강재	⇒	철강재	원부자재, 기타철강재, 기타철강금속제품
	기타철강금속제품	기타철강금속제품			
이차전지	건전지	건전지, 건전지부품	⇒	건전지	건전지, 건전지부품
	축전지	연축전지, 기타축전지		축전지	리튬이온전지, 연축전지, 기타축전지
섬유	섬유원료	인조섬유, 재생섬유	⇒	축전지소재	양극재, 전해액, 분리막
	섬유제품	의류, 기타섬유제품		섬유원료	인조섬유, 재생섬유, 천연섬유
	기타섬유제품	양탄자, 어망, 로프 등		섬유패션제품	의류, 가방, 신발, 기타섬유제품
	직물	견직물, 모직물, 면직물 등		기타섬유제품	커튼, 양탄자, 어망, 로프 등
일반기계	기초산업기계, 산업기계, 정밀기계, 기타기계류		⇒	직물	견직물, 모직물, 면직물 등
					제조장비, 산업기계, 에너지기계, 기계부품

### 참고3

### MTI 개편에 기준 따른 25년 실적

품목	주요 변경 내용	'25년 실적 변경
반도체 (MTI 83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스템 반도체 코드 신설</li> <li>• 메모리 반도체 중 D램, 낸드 구분</li> </ul>	173,406백만불
자동차 (MTI 74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sup>4단위</sup>차종별, <sup>6단위</sup>파워트레인별로 재편</li> <li>• 신차와 중고차 구분</li> </ul>	71,975백만불
석유제품 (MTI 133)	-	45,459백만불
석유화학 (MTI 21)	-	42,520백만불
일반기계 (MTI 71, 72, 75, 76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조장비, 산업기계, 에너지기계, 기계부품으로 하위 분류 변경</li> </ul>	46,897백만불 → 47,023백만불(+0.3%)
철강 (MTI 6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타철강재, 원부자재를 철강제품 → 기타철강금속제품으로 재분류</li> </ul>	30,286백만불 → 24,798백만불(△18.1%)
선박 (MTI 746)	-	31,816백만불
자동차부품 (MTI 74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부 품목 일반기계로 재분류</li> </ul>	21,200백만불 → 21,075백만불(△0.6%)
무선통신기기 (MTI 812)	-	17,256백만불
디스플레이 (MTI 8371)	-	16,985백만불
섬유 (MTI 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가방·신발·벨트 등을 섬유제품으로 변경해 통계의 대표성 확보</li> </ul>	9,679백만불 → 10,533백만불(+8.8%)
가전 (MTI 82)	-	7,269백만불
컴퓨터 (MTI 813)	-	13,736백만불
바이오헬스 (MTI 9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바이오헬스 단일 코드 신설</li> <li>• 의약품에 일부 품목 코드 추가</li> </ul>	16,276백만불 → 16,564백만불(+1.8%)
이차전지 (MTI 836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리튬이온배터리 코드 신설</li> <li>• 배터리 소재(양극재 등) 코드 신설</li> </ul>	7,228백만불
농수산식품 (MTI 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부 코드(천연소재) 섬유로 재분류</li> </ul>	12,416백만불 → 12,402백만불(△0.1%)
화장품 (MTI 2273)	-	11,418백만불
전기기기 (MTI 84)	-	16,683백만불

## 참고4

## 글로벌 수출 추이(WTO)

(단위 : 억 달러, 전년 동기비%)

순위	2026.1월			2026.2월			2026.2월 누계		
	국가명	금액	증감률	국가명	금액	증감률	국가명	금액	증감률
1	중국	3,567	+10.0	중국	2,999	+39.6	중국	6,566	+21.8
2	미국	1,863	+13.0	미국	1,951	+16.4	미국	3,814	+14.7
3	독일	1,423	+9.9	독일	1,560	+15.4	독일	2,984	+12.7
4	네덜란드	804	+8.2	네덜란드	794	+8.2	네덜란드	1,598	+8.2
5	<b>한국</b>	<b>658</b>	<b>+33.9</b>	<b>한국</b>	<b>674</b>	<b>+28.9</b>	<b>한국</b>	<b>1,332</b>	<b>+31.3</b>
6	대만	658	+69.9	이탈리아	636	+13.3	일본	1,203	+8.5
7	싱가포르	606	+38.8	일본	616	+1.7	이탈리아	1,183	+11.0
8	일본	586	+16.7	프랑스	583	+17.2	대만	1,157	+44.7
9	프랑스	567	+16.3	멕시코	569	+15.8	프랑스	1,149	+16.8
10	이탈리아	547	+8.4	대만	499	+21.1	싱가포르	1,079	+29.0

\* WTO 2월 통계 등록 국가 68개국 기준('26.4.23.)